



안녕하세요? 저는 최연화 수녀입니다. 저는 2002년 입회하여 2년 수련자 때 제천복지관에서 도움이 필요한 노인분들을 만나기 시작하여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난한 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첫 파견지인 제천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의 다양한 사연들과 빈곤한 현실, 그리고 사회제도로써 도와드릴 방법이 없는 분들을 만났을 때 참 많은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씨튼해바라기의집(청소녀 쉼터)에서는 누구나 있는 집의 문패를 달 수 없는 현실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씨튼해바라기의 집에서 생활하는 청소녀들은 성매매

피해 청소녀들이고, 그런 사실이 드러나면 피해자이지만 사회적 낙인을 받기 때문입니다. 성 피해 청소녀들을 위한 법이 마련 된지 2년 밖에 되지 않아 지원체계가 시험 단계였고, 아직 영성적인 면에서 햇병아리인 저는 ‘예수님과 마리아 막달레나’의 만남을 아무리 목상해도 아이들의 상처 난 마음을 쳐다보아야 하는 시간들이 버겁었습니다.

종신서원 전에 신학공부를 위해 가톨릭대학교 종교학과를 입학했고 1학기를 마친 여름, 에와도르 선교지로 파견된 수

녀님들의 긴급한 사정으로 공동체 내에서 다양한 내부 사도직을 도울 수녀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응답하여 1년 동안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나머지 학업을 마쳤습니다. 이 3년의 시간동안 신학적으로 풍요로움을 체험했고, 선교지에서의 다양한 빈곤과 신앙 표현을 접하며 질문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종신서원 후 인천새터민지원센터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을 만나면서 다른 문화 속에서 정착해 나가는 분들을 안내했고, 그 어려움을 헤아리는 데 지난 3년의 저의 질문들이 큰 밑거름이 되었고 마더씨튼께서 ‘세계의 시민’으로 살아갈 자세에 해주셨던 말씀들이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이 얼마나 북한이탈주민분

들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들을 위해 저를 준비 시킨 그 섭리에 절로 기도가 올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다시 씨튼해바라기의집에서 청소녀들과 4년째 살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오늘도 무사히 아이들이 학교에 간 것에 감사하고, 저녁에 무사히 귀가한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양치질은 했는지, 옷은 빨았는지, 학교에서 교우관계는 어떤지를 살피며, 일상을 살아가는 기쁨을 통해 회복되기를 성령님께 청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Hello, Sisters! My name is Choi, Yun Hwa. I entered our community in 2002. I began my experience as a social worker helping the vulnerable senior citizens at Jaecheon Social Welfare Center. While there I prayed a lot for those who desperately desired to survive from poverty and the gridlock in social systems. I continued to help and encounter the poor from all the walks of life and society.

After that I moved to work at Seton Sunflower House (the shelter for the runaway young girls), it was so painful that I could not put the nameplate of the house out in order to protect them from the social prejudices and risks. Because those who live in the house are prostituted youths, and if that is revealed to other people, the young women are socially stigmatized. The law for the young sexual abuse victims was just legislated then, and it was in the testing stage. Furthermore I was not mature enough in the realm of spirituality, so it was not easy for me to take care of their wounded hearts no matter how much I meditated on

the story of Mary Magdalen’s encounter with Jesus in the Gospel.



Before my perpetual vows, I entered the Department of Religion at the Catholic University and I completed the first semester. That summer I was missioned for one year to help the sisters working in Ecuador. Coming back to Korea I returned to school and finished the rest of my studies. During those three years, I could experience the richness of theological knowledge as well as reflect on various expressions and images of the poverty and faith in Ecuador. It gave me the time to question and seek for the answer of the meaning of life.

After perpetual vows, I was missioned to work for the North Korean defectors at Incheon Settlement Support Center, and I helped them settle themselves in another culture. The questions and answers that I asked and found during those three years that I mentioned above were a great resource, and the words of Mother Seton “Be a citizen of the world” and her teaching to do so became a compass for me. I found out that everything was God’s Providence for me and how much God loves them. I prayed with awe and gratitude to God for leading me.



Now I am living with the girls for four years at Seton Sunflower House again. I am thankful for their going to school in the morning and coming home safely in the evening. Checking whether they brushed their teeth or not, if their clothes are washed, and they have good relationship with their friends at school, I am asking the Help of the Holy Spirit to recover their wounded hearts through my little love and mission so that they can feel the little joys of daily life again.